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6월 20일

CUOMO 주지사, 학생 융자 이자율 배증을 막도록 의회에 촉구

Cuomo 지사는 오늘 학생 융자 이자율의 임박한 대인상을 막기 위한 긴급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의회의 뉴욕주 출신 의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7월 1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뉴욕주와 전국의 학생 융자 이자율이 2배로 뛰어 거의 7%가 됨으로써 평균적 대학 졸업생들의 부담이 $4,000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주지사는 서한에서 의회의 조치가 없으면 학생 세대는 "졸업후 수 년 내에 파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자율 인상은 "뉴욕주의 즉각적 회복과 미래의 경제 전망에 재앙적"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의회의 뉴욕주 출신 의원들에게 보낸 주지사의 서한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uomo 지사는 융자 및 고등교육 문제에서 뉴욕주 대학생들을 옹호해온 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주지사는 학생 융자업의 학대적 대출 관행을 폭로하고 기소하였으며 대학과 대출회사를 위한 전국적 모델 역할을 한 학생 융자 수행 규범을 개발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